

나주 공기업 지역인재 목표 채웠지만...채용 인원은 줄었다

지난해 13곳 150명 채용·40.9% 달성...한전KPS 등 4곳은 100% 재정약화에 채용수 감소·개정된 '지방대육성법'...을 채용 변수 예상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정부에서 지정한 목표에 대상 비율 기준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13곳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로 환산하면 40.9%로 전년(35.1%) 대비 5.8%p 증가한 수치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난 2018년부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

용제도(혁신도시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 받아왔다.

지역인재 채용 권고치는 지난 2018년 18%부터 2019년(24%), 2021년(27%), 2022년(30%)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응답하듯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보면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3개 공공기관 중 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2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 정부 권고치인 30%를 초과 달성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난 2021년 27.1%, 2022년 30.6%로 30%를 넘어섰고, 지난해 34.3%를 기록하는 등 정부 권고치를 상회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한전KDN(33.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8.2%), 한국인터넷진흥원(35.7%), 한국콘텐츠진흥원(40.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0%), 한국농어촌공사(56.3%) 등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한전KPS와 한국전력거래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대상보다 더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해 의무 채용 비율 100%를 달성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초과 달성 배경에 채용수 감소로 인한 기저효과

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최근 3년간 이전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 2021년 30.8%에서 지난해 40.9%로 10.1%p 상승했지만, 실제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지난 2021년 287명, 2022년 228명, 지난해 15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전체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역인재 채용 인원 수가 119명(2021년)→71명(2022년)→24명(2023년)으로 줄었다.

여기에 올해 채용의 경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대학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지방대학 출신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는 "이전기관 대부분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 요구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의 도입으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수 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아직 시행하려면 반년 정도 남았고, 정부지침이 내려와야 정확히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전수점검

저수지 107개소·방조제 15곳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성 평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122곳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 저수용량 100만 t 이상인 저수지, 포용저수량 1000만 t 이상인 방조제를 뜻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 대상은 저수지 107개소와 방조제 15곳이다.

전남본부는 본부 수자원관리부장을 합동점검반 총괄반장으로 임명하고, 본부와 지사 직원 11명으로 5개 반을 편성했다. 합동점검반은 ▲산세 접촉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전기적·화학적·생물학적·작업특성·작업환경에 따른 위험요인 ▲급·배수 작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인은 즉시 개선하거나 예산 등 여건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위험에 선제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을 위해 사전에 점검 및 대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직원들이 진도군 임회면 수장저수지에 배치된 인명구조함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본부는 매년 분기별로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2961개소에 대해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을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의 사전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전력망 건설 '혁신 대토론회' 개최

현안·주요 위험요인 분석 등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최근 전력 고속도로 건설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의 이행력 제고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겪

는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력망 건설 및 운영을 맡은 전력계통본부 사업소장 5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설, 운영, 송전 분야로 주제를 나눠 현안과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상황에 대한 경험과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은 전력 고속도로 건설 및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원전·재생에너지 등 발전력 적기 송전에 대한 설비계획 방식을 전환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국가 핵심사업에 대해 즉시 전력 공급방안을 수립하고 조기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적기 건설을 위해 단위공정별 사업관리, 핵심사업 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 전력망 확충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진이 주도해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 화훼산업 발전 모색



'저탄소 식생활' 실천 동참 요청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9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김준진 aT 사장과 브리어클리프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국내 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 선진국들

의 노후우 공역을 위한 세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생활 속 먹거리 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AIPH는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승인하는 국제비정부기구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인 울산시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등지의 현지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멀티미디어 부호화·국제 표준화 회의 유치

국립전파연구원, 7월 대전서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내년 7월 열리는 제47차 'ISO/IEC JTC 1/SC 29' 국제표준화 총회와 산하 작업반 회의를 국내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ISO/IEC JTC 1/SC 29는 이미지와 영상의 압축·전송 기술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분야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의 표준화를 진행하는 ISO/IEC JTC 1(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표준회의

가 정보통신 분야 국제표준화 작업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 만든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위원회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멀티미디어 부호화 분야 글로벌 표준화 전략과 차세대 방송·콘텐츠 기술 표준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30여 개 회원국과 애플,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에서 모두 5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내년 총회는 국립전파연구원과 대전관광공사의 협조를 통해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